

# 윤순옥 수필가·손영배 시인 등단

## 제3의 문학 2007년 여름호에 추천완료



수필가 윤순옥 시인 손영배

윤순옥 포천의제21고문과 손영배 기갑여단 주임원사가 제3의 문학

2007년 여름호에 추천완료되어 등단했다. 이번이 등단한 윤순옥 포천의제 21고문은 추천완료소감을 통해 "소설같은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 별로 없었지만 제가 받아들이 수 없는 고통이 따를 때면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가슴속에 사하며 글을 쓰곤 했다"며 "이제 아름다운 길, 문학의 길에 첫발을 내딛고 이 땅의 모든 생명과 동행하는 사람의 예술을 위해 더 큰 하늘을 만나고 싶

다"고 밝혔다. 손영배 주임원사는 "2008년 2월 직장생활 34년 마무리를 앞두고 새로운 변신을 꿈꾸어왔다"며 "이제 세상과 사물,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세심하게 관찰하며 좋은 작품을 쓰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정목일 한국문학 수필분과위원장 은 심사평을 통해 "윤순옥씨의 글들은 개인사의 기록에 그친 신변잡기를 초월하고 있다는 점, 시대정신

과 비판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 삶속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점과 아울러 절제된 통찰력과 분석,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윤순옥 수필가는 충북 제천출신으로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 민주평통 포천시지부 부회장, 포천의제21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손영배 시인은 경북 김천출신으로 육군 제1기갑여단에 근무하고 있으며 영북중학교 운영위원장, 포천시 문 조사위원회 영북면지부장, 운전제일교회 장로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韓國의 선비정신 · 72

### 공명정대(公明正大)한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김안로는 자신의 아들 희(禧)가 장경왕후의 첫째 딸과 혼인하자 갑자기 승진하여 이조판서가 되었다. 그는 정황을 일삼으며 호곡목장(虎曲牧場)을 떼어 자신의 밭을 만들려고 했다. 그때 정광필은 사복제조(司敔提調)로 있었다. 정광필이 김안로의 음모를 알고는 사람을 앞세워 말했다. "그곳은 나라에서 말을 기르기 위해 만든 목장이다. 결코 세도 있는 집에 갈라줄 수 없으니, 갖고 싶거든 내가 늙어 죽은 뒤에 나 하라."

이때부터 김안로는 정광필에게 일하를 맡게 되었다. 그 후 인종의 어머니 장경왕후의 희릉(禧陵)을 옮길 때 정광필이 책임을 맡았는데, 김안로는 좋지 않은 땅에 능을 옮겼다는 이유로 정광필을 귀양에 처하려고 요구했다.

정광필은 결국 파면되어 회덕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오랜 정승생활에도 집안이 가난하여 반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하루는 관리 한 사람이 앞산에서 사냥을 하던데, 마침 그에게 쫓기던 사슴 한 마리가 정광필의 집 울타리 안으로 도망쳐 들어왔다. 그러자 정광필의 아들들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 여기고 사슴을 잡아 아버지에게 반찬을 만들어주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을수령이 사람을 보내 말했다.

"높은 사람에게 진상할 물건을 훔쳐 먹었으니 이는 벌을 받아야 할 죄로다."

그러고는 날마다 사람을 보내 사슴을 내놓으라고 독촉하였다. 그러나 산에 가서 잡을 수도 없고, 시장에 가서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온 집안 식구들이 여쭙자 할 바를 물었다. 다행히 친척 중에 이웃고을의 원로 있던 사람이 대신 노루를 잡아주었다.

그 후 정광필이 복직되어 도성으로 돌아 왔을 때,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사슴을 빼앗아간 수령을 파직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광필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잘 모르고 저지른 일일 뿐이오. 그 사람은 당시 권세를 잡고 있던 사람이 두려워서 나에게 일 부러 그렇게 한 것이니 책망할 일이 아니오."

정광필은 그 수령이 다시 관직에 머물 수 있도록 힘써 두둔하였다.

자제들이 서둘러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고했다. 정광필은 그 소식을 듣고도 "그러는가?" 하고는 코를 골면서 달걀 잡자리에 들었다. 정광필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특별하였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손자 정유길과 증손자인 정지연에게만 먹게 하고 다른 자제들은 주지 않았다. 훗날 이들은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에 올랐다.

그때 이현국(李憲國)은 정광필의 손자뿐 되는 친척이었었는데, 어렸을 때 문인을 드리러 간 적이 있었다. 마침 정유길과 정지연이 집에 없자 정광필은 한국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니 종을 불러 남은 음식을 건네다 주게 하였다. 현국이 음식을 먹고 나 오자 종들이 서로 웃으며 말하였다.

"저 사람도 정승이 될 팔자인가?" 그 후 현국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년(중종 14) 남곤(南袞), 홍경주(洪景舟) 등의 훈구파에 의해 조광조 등의 신진 사류가 축출된 사건이 기묘사화이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연산군의 폐정을 개혁하고, 명망있는 신진 사림파를 등용하였다. 그러나 신진 사림은 도학사만 강조하여, 훈구파를 배척하며 급진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훈구파는 신진 사림파의 반목이 날로 심해지자 홍경주의 딸이 중종의 후궁인 것을 이용하여, 궁중 통상의 나뭇잎에 꿀로 '주초왕왕(走肖爲王)'이라고 써 놓았다. 이것을 벌레가 갉아먹어 글자 모양이 나타내자 그 잎을 왕에게 보였다. '走'와 '肖'자를 합치면 곧 조(趙)자가되기 때문에, 곧 조(趙) 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었다. 당시 신진 사림의 급진성에 열증을 느낀 중종은 이 사건을 빌미로 신진 사림파를 몰아냈다.

이때 조광조는 귀양을 가서 사사되고 김경, 기중, 한충, 김직 등이 부르고 임이 말라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종들이 기진맥진하여 말을 못한 채 쓰러지자 정광필의 자제들이 놀라고 당황하여 종의 주머니 속을 뒤져보니 도성으로 올라오라는 기별이 들어 있었다.

한밤중이 되어 종들이 도착했는데, 너무 급히 달려오느라 발이 부르트고 임이 말라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종들이 기진맥진하여 말을 못한 채 쓰러지자 정광필의 자제들이 놀라고 당황하여 종의 주머니 속을 뒤져보니 도성으로 올라오라는 기별이 들어 있었다.

## ‘포천시 청소년, 세계를 향해 날다’

### 국제 자매·우호도시 방문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

포천시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6박7일 동안 '국제 자매·우호도시 방문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를 갖는다. 이에 앞서 7월27일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참가학생 및 학부모, 인솔교사 등 134명이 참석하여 결단식을 가졌다.

이들은 국가별 사회·문화·예술 등 외국문화를 체험하고, 자국 문화 경연대회와 각종 노래 배우기를 통해 각국의 독특한 문화를 서로 경험하며 나라별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각국에 머무는 동안 홈스테이로 진행돼, 우리나라 학생과 외국 가정들 간에 행사 프로그램만으로 느낄 수 없는 보다 두터운 정을 나누게 된다.



청소년들과 인솔자 및 통역요원 등 40명을 초청하고 포천지역 중학생 50명이 참여하는 '2007 포천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죽어서도 돈을 버는 뮤지컬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 (Richard Rodgers, 1902~1979)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 세상에는 이름과 함께 돈도 남긴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죽어서도 돈을 버는 것이 과연 죽은 당사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는지라는 적어도 자신의 이름이 후세에도 회자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광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2001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죽은 사람들(Dead Celebrities The Top Earners)'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2006년까지 최고 수익자 10명(2006년에 13명)을 선정하고 있는데 연간 최소 수입 500만 달러(2006년에 70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사후에 막대한 저작권료를 받는 10명의 인물 중에는 2005년까지 골프 1위(2006년에 2위)를 고수해 온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와 함께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 존 레논(John Lennon)을 포함한 비틀즈(The Beatles) 멤버들이 눈에 띈다. 선정된 인물들 대부분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가수들이거나 배우들이나 목욕에 뮤지컬 작곡가 두 사람이 들어 놀랐다. 어빙 벌린(Irving Berlin, 1888~1989)과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가 그들이다. 1994년 10위에 오른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는 그 해 650만 달러를

벌었다. 물론 그 수입은 로저스의 제2의 전성기였던 1950년대 뮤지컬 영화들의 비디오 판권으로부터 더 비롯된 것이지만 1940~50년대에 만들어진 브로드웨이 뮤지컬들이 아직도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다는 점도 순위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폴리아드 음대의 전신인 맨해튼 음악학교 출신인 리처드 로저스는 1940년대와 1950년대를 그의 뮤지컬 인생의 황금기로 꼽는다. 작사가인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와 콤포지터 이위(남태평양(South Pacific, 1949))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 등의 뮤지컬을 작곡했다. '도레미송(Do-re-mi Song)' '에델바이스(Edelweiss)' 등 주옥같은 노래를 담은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1959)>은 이 콤포지터의 마지막 작품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고전이 됐으며 줄리 앤 드류스(Julie Andrews) 주연으로 영화화된 작품도 뮤지컬 영화의 고전으로 오늘날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로 감상하고 있는 명작이다. 하지만 이들 명작이 탄생하기까지는 로저스가 로렌즈 하트와 콤포지터 이위 1930년대의 작품들이 커다란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로저스와 로렌즈 하트(Lorenz

Hart, 1885~1943)가 처음으로 직업적인 성공을 거둔 작품은 레뷰 <더 개리 게이티즈(The Garrick Gaiety, 1925)>로 이 작품에는 유명한 노래 '맨해튼(Manhattan)'이 포함되어 있다. 1936년에 코미디 <온 유어 톱스(On Your Tots)>를 제작하였는데 이 작품에서 재즈 발레 '10번가의 살인(Slaughter on Tenth Avenue)'을 도입하여 뮤지컬 코미디에 무용의 역할을 확립하였다. 하트와 공동작업 한 주요작품으로는 <점보(Jumbo, 1935)> <베이브스 인 아암스(Babes in Arms, 1937)> <친구 조이(Pal Joey)>는 주디 갈랜드(Judy Garland)와 진 켈리(Gene Kelly)를 출연시켜 뮤지컬 영화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작품으로 잘 알려졌다. 이들 두 사람 역시 경제공황의 여파가 가장 심했던 1930년대 전반기에는 주로 할리우드에서 활동했다. 로저스는 나중에 그 당시를 회고하며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시절이었다고 했는데 뮤지컬 영화사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작품도 만들어졌다. 뮤지컬 영화 <러브 미 투나잇(Love Me Tonight, 1932)>에서 노래들과 필름 스코어를 담당했는데 이 영화는 역대 뮤지컬 영화 중에서도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대표곡인 '미미(Mimi)'와 '로맨틱하지 않아요?(Isn't It Romantic?)'는 오늘날에도 종종 매체나 콘서트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이다.

죽어서도 돈을 버는 뮤지컬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 (Richard Rodgers, 1902~1979)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06)

### 「부처 경관」이야기

서울 수복 후, 서울 시내에는 교통 경찰관들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였다. 대개 해당 관내 경찰관 파출소 순경들이 담당하기도 하고 여자 경찰관들이 교통정리를 하여 여자들이 힘썼다. 그런데, 서울 시내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운전자들은 교통 경찰관들의 단속 태도를 평하는 이야기가 서울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서울 창덕궁과 비원의 정문인 돈화문 앞, 경찰관 파출소는 매우 유명하였다. 별명이 「부처 순경」이었기 때문이다. 「부처 순경」경찰관은 포천 출신의 효자, 열녀의 후손, 「심순경님」이었다.

돈화문 파출소 「부처 경찰관」, 「심순경님」은 창덕궁과 비원을 경비하지 않던 시절 경비 책임자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경사대우) 더욱 놀라운 일은 종로 47에서 광화문을 경유 중앙정(현, 경복궁 앞)으로 갈 일이 있어도 일부러 앞남동으로 돌아서 심순경님이 교통정리를 하는 돈화문 앞을 지나서 중앙정으로 운행하는 운전기사 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까다롭게 체크 당하고 검색 당하는 경우 로움을 피하고 안전하고 무사 통과에다 미소짓는 심순경님이 교통정리를 하는 돈화문 앞 통과 차량이 유난히도 폭주하였다는 사실은 5, 60년 대를 서울에서 살아 본 사람

들의 사설이기도 하다. 그만큼, 「부처 순경 심순경님」은 유명하였다. 또, 창덕궁·비원 경비 책임을 맡고 있던 심순경님은 비원 내에 있는 밤, 도토리, 상수리, 가얏대 등을 채취하도록 허가하여 당시, 미합중국과 UN 회원국의 원조, 미국의 잉여농산물 식량 원조로 굶주림을 겪어 면하고 살던 시절 식량 사정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는 얘기는 유명한 일화로서 70대 이상은 기억하는 한다. 심순경님은 자손들의 후한 인심과 효도를 받으며 여생을 보내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효자 열녀의 후손답다는 생각이 들고는 한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하는 서울 빈민의 낙원이었다. 평소 서울의 소시민들이 궁핍의 뒤뜰을 훼손치 않고 버려지는 나무열매를 식량 보탬으로 요긴하게 먹을 수 있으리라는 아이디어는 심순경님의 부처님 같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심순경님은 평소, 청렴 결백하고 검소하여 늘, 생활이 그 당시 경찰관의 봉급으로는 가난하였다. 그러나, 의연한 자세로 경찰관 장면을 맞았던 심순경님이었다. 그 후, 「적덕자기 발유여경(積德之家必裕穰)」이란 옛 말이 틀리지 않아 후손의 사업이 융성하여 주물레조공업계의 발전을 거듭하는 축복받는 사업가가 되었으며 손자녀들도 조부님의 뜻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심순경님의 후손답다는 생각이 들고는 한다. 심순경님은 자손들의 후한 인심과 효도를 받으며 여생을 보내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효자 열녀의 후손답다는 생각이 들고는 한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 제5회 포천시 문화상 후보자 접수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23일간

포천시는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인사를 널리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제5회 포천시문화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시상부문은 학술, 문화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부문 각 1명이며 수상 후보자 자격은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포천시가 본적인 사람,

관내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과거 문화상 수상경력 없는 사람이다. 추천서 접수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23일간이며 현지 사실조사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포천시 문화상은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시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

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1년 포천군 문화상으로 제정됐으며, 2003년 시 승격에 따라 제1회 포천시 문화상으로 새롭게 명명된 후, 올해 제5회 수상자가 선정됐다. 포천시는 10월 5일 「제5회 포천시민의 날」에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초대 漢詩

### 盤龜書院奉審(반구서원봉심)



柳鳳鉉 포천한시사 강사

曉曙登程日出東(효서등정일출동) 儒林各自整裝同(유림각자정장동) 이른 새벽에 차에 오르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유림들은 제각기 새 옷으로 단장했다. 人行緩步俚遲兩(인행완보이遲兩) 車去驅馳似疾風(차거구치사질풍) 사람 걸음 느리어 가운대 빗방울 같으며 객을 실은 버스는 질풍처럼 달려가네. 書院規模三位奉(서원규모삼위봉) 名賢教化四方通(명현교화사방통) 반구서원에선 삼현을 배향 했는데 명현들의 교화가 사방으로 퍼지고 있네. 敬虔拜謁焚香審(경건배열분향심) 追慕誠心永不窮(추모성심영불궁) 경건한 마음으로 배향하고 분향을 드리는 성심으로 추모하오니 영원히 끝이 없네.